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대성*, 유은영**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Effect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in Technical Colleg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e-sung Park*, Eun-yeong Yu**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J¹도, J²도, G광역시에 소재한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을 임의선정하고 편의표집 한 556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자기기입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종 510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학부생의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in technical colleges with the aim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employment counselling program which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56 college students studying public health in technical colleges in J province¹, J province², and G metropolitan city and they were randomly selected and sampled in convenience. The period of the survey was from September 7 to 9, 2015 and the survey was made with the use of a self-essay type questionnaire. 510 copies of the survey collected were analysed with the use of SPSS 14.0 for Windows.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students studying public health in technical colleges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organized and practical career counselling should be provided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subjects to have posi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practical career counselling and career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lead students studying public health to positive career preparatory activity, and research to verify its effect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Technical colleges,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Career barrier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vergence

Received 30 September 2016, Revised 1 Dec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Park Daesung(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Email: emtpps1@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우리 나라 대학생은 입시위주 교육환경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입학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성숙도가 낮은 상태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진로선택과 취업문제로 혼란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불안과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1]. 또한 어느 때 보다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 불확실한 미래, 취업난 심화와 청년실업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현실적인 문제로 더욱 절실하고 심각한 수준에서 고민하게 되므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청년 실업률은 10.9%로 이는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 대학원생,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2].

대학에서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경쟁이 시작된다. 교육과정 내내 진로에 대해, 직업에 대해 탐색할 기회는 거의 없으며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고 취업을 한다. 그로 인해 대학생 중 52%가 전공교체를 희망하고, 첫 취업 후 2년 내 퇴직이 75%를 넘고 있다[3]. 여기에 고용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고용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불확실성은, 막연한 취업 불안이나 진로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인지되어, 취업준비대학생의 대학생활이나 진로준비행동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전문대학이 청년 해외 취업을 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대학 졸업생의 해외 진출 직종에 대한 외국의 취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별도의 해외취업반을 편성, 해외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원어민 교수 채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5]. 또한 전문대학의 경쟁률이 높은 학과 대부분은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유턴족도 많다[6].

진로장벽은 진로계획에 있어서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Crites(1969)는 직장에서 개인이 직업에 적응하는 과정 중 방해되는 조건으로 처음 소개하였다[7]. 진로장벽은 개인이 지각하는 종류와 지각 정도에 따라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로장벽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8].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9].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실시하는 시험과목을 준비하는 일, 그 직업의 취업절차나 기타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일, 원서 및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등의 직접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지칭한다[10]. 진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결정이다.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나아가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자료수집 등을 통한 노력,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총칭한다.

전문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11,12,13]은 주로 진로준비행동을 저해하는 진로장벽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 왔고, 대체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 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14]. 그러나 보건의료에 취업해야 하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¹도, J²도, G광역시에 소재한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을 임의선정하고 편의표집 한 556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3일 동안)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556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6부를 제외한 51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진로장벽 검사도구

진로장벽 검사 도구는 Kim[15]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장벽 검사 도구로 총 30문항으로서 심리적 진로장벽과 객관적 및 환경적 진로장벽을 평가하는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진로장벽은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과 성격 문제, 취업의 현실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 및 환경적 진로장벽은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갈등) 문제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는 0.933이었다.

2.2.2 진로준비행동 검사도구

진로준비행동 검사 도구는 kim[9], An[16]에 의해 검증된 총 18문항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는 0.911이었다.

2.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scheffe),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이 136명(26.67%), 여성이 374명(73.33%) 이었고, 학과는 방사선과 195명(38.24%), 임상병리과 129명(25.29%), 보건행정과 104명(20.39%), 응급구조과 82명(16.08%)이었다. 학년은 1학년 162명(31.57%), 2학년 161명(31.57%), 3학년 187명(36.67%)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10

Division		N	%
Sex	Boys	136	26.67
	Girls	374	73.33
Departmen	Radiological technology	195	38.24
	Clinical pathology	129	25.29
	Health administration	104	20.39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82	16.08
Grade	1	162	31.76
	2	161	31.57
	3	187	36.67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취업의 현실여건($t=1.747$, $p < 0.05$), 취업기반 부족($t=2.280$, $p < 0.05$), 학벌과 전공($t=1.983$, $p < 0.05$), 나이와 신체조건(열등)($t=2.857$, $p < 0.001$), 경비와 집안사정($t=2.225$, $p < 0.05$), 부모와 주변인($t=3.403$, $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에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취업의 현실여건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임상병리과, 보건행정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192$, $p < 0.001$). Scheffe 검증결과, 방사선과가 응급구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기반 부족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병원행정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076$, $p < 0.05$). Scheffe 검증결과, 방사선과가 보건행정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벌과 전공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응급구조과,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462$, $p < 0.05$). Scheffe 검증결과, 방사선과가 임상병리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와 신체조건(열등)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910$, $p < 0.05$). Scheffe 검증결과, 방사선과가 응급구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와 주변인(갈등)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747$, $p < 0.05$). Scheffe 검증결

<Table 2> Differences in career barrier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Career barriers																		
	1		2		3		4		5		6		7		8		9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S	S ¹	3.70	0.65	3.74	0.58	3.55	0.63	3.27	0.81	3.53	0.67	3.51	0.69	3.85	0.59	3.77	0.60	3.72	0.60
	S ²	3.70	0.64	3.76	0.56	3.57	0.58	3.13	0.68	3.39	0.58	3.39	0.50	3.69	0.55	3.64	0.55	3.53	0.48
	t	0.052		0.243		0.367		1.747*		2.280*		1.983*		2.857**		2.225*		3.403**	
D	D ¹	3.72	0.62	3.80	0.57	3.60	0.59	3.36	0.76	3.61	0.68	3.57	0.69	3.89	0.60	3.75	0.61	3.74	0.62
	D ²	3.67	0.68	3.69	0.57	3.49	0.62	3.29	0.71	3.47	0.60	3.36	0.63	3.77	0.59	3.74	0.58	3.61	0.54
	D ³	3.76	0.68	3.77	0.60	3.57	0.67	3.10	0.78	3.38	0.62	3.40	0.59	3.81	0.53	3.77	0.56	3.71	0.57
	D ⁴	3.63	0.61	3.69	0.56	3.54	0.60	3.01	0.87	3.39	0.64	3.54	0.57	3.68	0.56	3.63	0.57	3.54	0.51
	F (\$)	0.823		1.332		0.787		5.192** (a>d)		4.076* (a>c)		3.462* (a>b)		2.910* (a>d)		0.958		2.747* (a>d)	
G	G ¹	3.66	0.63	3.69	0.57	3.51	0.63	3.10	0.74	3.40	0.61	3.42	0.60	3.74	0.54	3.73	0.56	3.63	0.54
	G ²	3.69	0.67	3.75	0.58	3.58	0.63	3.20	0.73	3.45	0.61	3.43	0.60	3.76	0.58	3.70	0.57	3.63	0.55
	G ³	3.74	0.63	3.80	0.58	3.58	0.60	3.38	0.83	3.61	0.69	3.57	0.70	3.91	0.61	3.76	0.62	3.73	0.63
	F (\$)	0.638		1.791		0.803		5.830** (c>a)		5.554** (c>a)		3.112* (c>a)		4.716* (c>b,a)		0.468		1.842	

*p<0.05, **p<0.001, M: Mean

S: Sex, S¹: Boys, S²: Girls, D: Departmen, D¹: Radiological technology, D²: Clinical pathology, D³: Health administration, D⁴: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 Scheffe, G: Grade, G¹: 1, G²: 2, G³: 3, 1: Lack of job information, 2: Lack of personal-career understanding, 3: Lack of confidence and personality problems, 4: Real conditions of employment, 5: Lack of an employment base, 6: Educational specifications and majors, 7: Age and physical conditions(inferior), 8: Expenses and household conditions, 9: Parents and surrounding people(conflict).

과, 방사선과가 응급구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취업의 현실여건 (F=5.830, p<0.001), 취업기반 부족(F=5.554, p<0.001), 학벌과 전공(F=3.112, p<0.05)은 학년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Scheffe 검증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716, p<0.05). Scheffe 검증결

과, 3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정보수집 활동(t=1.895, p<0.05), 도구구비 활동(t=1.071,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은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활동(F=5.708, p<0.05),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tool preparation activity		Practical action		
	Mean	SD	Mean	SD	Mean	SD	
Sex	Boys	3.51	0.65	3.51	0.53	3.33	0.59
	Girls	3.39	0.55	3.46	0.46	3.28	0.50
	t	1.895*		1.071*		0.870	
Departmen	Radiological technology	3.55	0.66	3.48	0.53	3.37	0.60
	Clinical pathology	3.40	0.58	3.46	0.48	3.22	0.58
	Health administration	3.48	0.56	3.52	0.46	3.34	0.49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3.41	0.70	3.61	0.56	3.31	0.55
	F	1.934		1.694		1.916	
Grade	1 ^a	3.38	0.57	3.46	0.47	3.23	0.55
	2 ^b	3.44	0.59	3.49	0.45	3.31	0.50
	3 ^c	3.59	0.70	3.54	0.59	3.40	0.61
	F(Scheffe)	5.708*(c>a)		1.180		3.943*(c>a)	

*p<.05, **p<.001

실천적 활동($F=3.943,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Scheffe 검정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4 변수 간의 상관관계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갈등) 간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0.346\sim0.759, p<0.01$), 또한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 간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619\sim0.716, p<0.01$). 그러나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갈등)과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 간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288\sim-0.506, p<0.01$)<Table 4>.

3.5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경비와 집안

사정, 부모와 주변인(갈등)이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에 미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7.899,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322이었다. 정보수집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beta=-0.11, p<0.05$)이었고, 학벌과 전공($\beta=-0.12, p<0.05$),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beta=-0.15, p<0.05$), 취업기반 부족 ($\beta=-0.11, p<0.001$)이 순차적으로 부적(-)영향을 미쳤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도구구비활동에 미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1.035,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262이었다. 도구구비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업기반 부족($\beta=-0.15, p<0.05$)이었고,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beta=-0.17, p<0.05$), 자기진로 이해 부족($\beta=-0.18, p<0.05$)이 순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실천적 활동에 미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6.309,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는 0.309이었다. 실천적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업기반 부족($\beta=-0.19, p<0.001$)이었고, 자기진로 이해 부족($\beta=-0.21, p<0.001$), 부모와 주변인(갈등)($\beta=-0.22, p<0.001$)이 순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vision	1	2	3	4	5	6	7	8	9	I	T	P
1	1											
2	0.759**	1										
3	0.647**	0.700**	1									
4	0.393**	0.346**	0.425**	1								
5	0.471**	0.467**	0.470**	0.684**	1							
6	0.399**	0.490**	0.509**	0.505**	0.706**	1						
7	0.400**	0.438**	0.420**	0.404**	0.460**	0.502**	1					
8	0.389**	0.426**	0.415**	0.404**	0.481**	0.462**	0.720**	1				
9	0.518**	0.546**	0.572**	0.470**	0.532**	0.511**	0.580**	0.723**	1			
I	-0.390**	-0.426**	-0.449**	-0.401**	-0.506**	-0.459**	-0.288**	-0.347**	-0.407**	1		
T	-0.371**	-0.439**	-0.443**	-0.314**	-0.402**	-0.383**	-0.327**	-0.332**	-0.409**	0.619**	1	
P	-0.367**	-0.449**	-0.429**	-0.354**	-0.458**	-0.432**	-0.309**	-0.355**	-0.468**	0.716**	0.658**	1

* $p<0.05$, ** $p<0.001$

1: Lack of job information, 2: Lack of personal-career understanding, 3: Lack of confidence and personality problems, 4: Real conditions of employment, 5: Lack of an employment base, 6: Educational specifications and majors, 7: Age and physical conditions(inferior), 8: Expenses and household conditions, 9: Parents and surrounding people(conflict), I: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T: tool preparation activity, P: Practical action.

<Table 5>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vision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Tolerance	VIF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1	-0.02	0.06	-0.02	-0.33	0.37	2.67
	2	-0.11	0.07	-0.10	-1.61	0.33	3.07
	3	-0.16	0.06	-0.15	-2.73*	0.42	2.40
	4	-0.05	0.04	-0.06	-1.15	0.50	2.00
	5	-0.23	0.06	-0.24	-3.82**	0.34	2.98
	6	-0.12	0.05	-0.12	-2.11*	0.42	2.36
	7	-0.12	0.06	-0.11	-1.95*	0.43	2.30
	8	-0.10	0.07	-0.09	-1.45	0.34	2.98
	9	-0.04	0.07	-0.03	-0.54	0.36	2.76
$R^2=0.334, \text{Adj } R^2=1.322, F=27.899^{**}, D^f=1.925$							
Tool preparation activity	1	-0.03	0.05	-0.04	-0.56	0.37	2.67
	2	-0.16	0.06	-0.18	-2.72*	0.33	3.07
	3	-0.14	0.05	-0.17	-2.87*	0.42	2.40
	4	-0.00	0.04	-0.01	-0.12	0.50	2.00
	5	-0.11	0.05	-0.15	-2.22*	0.34	2.98
	6	-0.03	0.05	-0.04	-0.72	0.42	2.36
	7	-0.03	0.05	-0.04	-0.62	0.43	2.30
	8	-0.00	0.06	-0.00	-0.04	0.34	2.98
	9	-0.09	0.06	-0.11	-1.69	0.36	2.76
$R^2=0.275, \text{Adj } R^2=0.262, F=21.035^{**}, D^f=1.867$							
Practical action	1	-0.06	0.05	-0.07	-1.16	0.37	2.67
	2	-0.21	0.06	-0.21	-3.26**	0.33	3.07
	3	-0.08	0.05	-0.08	-1.47	0.42	2.40
	4	-0.02	0.04	-0.02	-0.40	0.50	2.00
	5	-0.16	0.06	-0.19	-2.92**	0.34	2.98
	6	-0.08	0.05	-0.09	-1.57	0.42	2.36
	7	-0.06	0.05	-0.06	-1.04	0.43	2.30
	8	-0.00	0.06	-0.00	-0.03	0.34	2.98
	9	-0.21	0.06	-0.22	-3.59**	0.36	2.76
R^2	$R^2=0.321, \text{Adj } R^2=0.309, F=26.309^{**}, D^f=2.060$						

*p<0.05, **p<0.001, D^f: Durbin-watson

1: Lack of job information, 2: Lack of personal-career understanding, 3: Lack of confidence and personality problems, 4: Real conditions of employment, 5: Lack of an employment base, 6: Educational specifications and majors, 7: Age and physical conditions(inferior), 8: Expenses and household conditions, 9: Parents and surrounding people(conflict).

4. 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취업의 현실여건,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갈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진로 장벽의 하위 영역 9개 중 6개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Jung[17]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흥미 부족, 미래 불안 등에서 진로장벽을 느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과에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취업의 현실여건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임상병리과, 보건행정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또한 취업기반 부족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병원행정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벌과 전공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응급구조과,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나이와 신체조건(열등)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와 주변인(갈등)은 방사선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 방사선과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5개 항목에서 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행정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에 비해 방사선과의 취업률 저조, 그리고 취업처의 다양성 여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율이 높은 것도 진로장벽에 대한 압박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Park[14]의 연구에서는 전공계열 간 진로장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문계열이 사회·상경, 사범, 이공, 의약보건, 예체능에 비해 진로장벽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여대생들이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의약보건계열, 이공계열 등과 같은 다른 전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고, 향후 진출분야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학년에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취업의 현실여건,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은 학년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3년제 보건계열 전문대학의 특성상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면허증 취득을 위한 준비과정이 진로장벽 압박감이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Jang[1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평균 점수가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과 직업에 대한 현황, 전망,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성은 자신의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추려는 활동이 여성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You[19]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Jang[18]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성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년은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활동, 실천적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학년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정보수집 활동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적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You[19]의

연구에서도 4학년 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이거나 졸업이 가까울수록 타 학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갈등) 간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부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Jang[18]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 하위요인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Park[20]의 연구에서도 진로준비행동 하위영역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진로장벽 하위요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진로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 취업기반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갈등)과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 간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Shin 등[11]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장벽 하위요인들 중 관계의 어려움, 명확성 부족, 정보부족, 흥미부족, 미래 불안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타인갈등, 나이문제, 신체문제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서는 관계의 어려움, 명확성 부족, 정보부족, 흥미부족, 미래 불안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장벽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진로장벽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정보수집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은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학벌과 전공,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취업기반 부족이 순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도구구비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업기반 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자기진로 이해 부족이 순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실천적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업기반 부족 이었고, 자기진로 이해 부족, 부모와 주변인(갈등)이 순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의 결과는 취업기반 부족, 자신감 부족 및 성격문제, 자기진로이해 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열등), 부모와 주변인(갈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진로 장벽이 높을수록 진로 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진다고 분석된다. Jang[18]의 연구에서도 진로 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직업정보부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성 부족, 나이문제, 흥미부족 순으로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Shin 등[11]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 하위요인들 중 명확성 부족, 정보부족, 타인갈등, 나이문제, 신체열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들 중 정보부족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Park[21]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은 적성학습이었고, 대인관계, 진로직업 순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이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저하된다. 이에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일 예로 대학측제가 공연의 선정성이 아닌 최대 고민인 취업을 주제로 취업박람회 중심의 대학 측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22].

따라서 보건계열 학부생의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학부생의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

생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Y. M. Sung, "Flight operation;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for the coping of career Stress",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ol. 15, No. 1, pp. 26-37, 2007.
-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Employment trends released".
- [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work step-by-step analysis of survey results".
- [4] E. J. Lee, "The effects of employment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Verification of medium effect of career-decision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2012.
- [5]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775\(2016.03.23.\)](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775(2016.03.23.))
- [6]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76889200588811007\(2016.10.20.\)](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76889200588811007(2016.10.20.))
- [7] J. O. Crites,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1969.
- [8] E, R. Sohn, K. H. Kim, "The factor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1, pp. 121-139, 2002.
- [9]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10] K. H. Kim, "Counseling psychology(2nd Ed.)", Seoul: Hakjisa, 1997.
- [11] J. Y. Shin, S. S. Park, J. E. Hyung,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25 No. 1, pp. 19-35, 2012.
- [12] J. E. Kang,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mparison between the 4-year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2-year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 [13] M. J. You, “Impa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14] S. K. Park,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3.
- [15] S. H. Kim, “Career group career guidance programs for reducing disab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ol. 25, No. 2, pp. 83-121, 2008.
- [16] H. J. An, “The influence of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3.
- [17] H. K. Jung, “The effects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career barriers and self-encouragement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9.
- [18] Y. S. Jang,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2015.
- [19] S. B. You,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3.
- [20] J. U. Kim, S. S.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26, No. 3, pp. 123-141, 2013.
- [21] D. S. Park,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15-23, 2014.
- [2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16010004674\(2016.10.17.\)](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16010004674(2016.10.17.))

박 대 성(Park, Dae sung)



- 2005년 8월 :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춘해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관심분야 : 응급처치학, 보건학
- E-Mail : emtpds1@naver.com

유 은 영(Yu, Eun yeong)



- 200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병원행정학석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병원(보건) 행정, 보건학
- E-Mail : yuy368@ghc.ac.kr